

도치하타다니 지구

15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계곡에는 수백 명의 광부와 그 가족들이 산비탈의 평평한 계단식 토지에 지어진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. 주민들은 계곡 중앙에 있는 사히메야마 신사에서 광산의 신 가나야마히코노미코토에게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, 이 지역에 세워진 여러 불교 사원에 죽은 자를 모셨습니다.

인근 광산에서 채굴된 은광석은 강 건너편에 있는 가공 시설장에서 분쇄하고 체로 쳐서 은을 함유한 부분을 선별한 후 제련했습니다. 제련 과정에서 광석을 850℃의 고온으로 가열했던, 제련소의 기초 일부만 남아 있지만 그 건물에는 내화성 흙벽과 여러 개의 창문, 연기와 아황산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굴뚝이 각 방마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

도치하타다니에는 광부들의 주거지는 남아 있지 않지만, 계단식 땅을 보강하기 위해 쌓은 돌담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. 갯도의 개구부도 언덕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, 적어도 에도시대(1603~1867년) 말기까지 광부들이 살았던 도치하타다니에는 지금도 사히메야마 신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.